

##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중교배

장 하 준

**이근 교수:**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를 기획한 서울대 경제연구소 이근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경제연구소에서 그 동안 몇 번해오던, 경제학의 최근 동향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은 특별히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를 모시고 이 시리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시리즈에서 한 행사는 경제논집이라고 경제 연구소 발행문 인데요. 서울대 경제연구소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경제발전이라든가, 비교경제 체제론, 정치경제학, 거시경제학, 현대경제이론, 한국경제와 같은 내용으로 주로 본과의 선생님들과 일부 외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해 왔었고, 오늘은 장하준 교수 토픽으로 해서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중교배’라고 해서 뒤에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주 내용은 경제학의 여러 학문 조류간의 흐름과 상호 교류란 주제로 장 교수께서 강의 해주 실거라고 봅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적합한 주제인거 같습니다.

장 교수님 대한 소개는 뭐 별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한국인 경제학자로서 아마 제일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이고 서울대 경제학부 82학번, 학교에서는 학번을 따지니깐, 82학번 출신이고 바로 영국으로 유학 가서 캠브리지에서 학위하고, 바로 캠브리지에서 ‘job’을 잡으신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뮈르달(Myrdal) 상을 받으셨고, 레온티에프(Leontief)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레온티에프(Leontief) 상은 그 상을 받은 학자 분들 중에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아주 뜻깊은 상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제, 세계 몇 대 사상가(“Thinker”)라는 명칭도 얻게 되었는데, 특히 인제 사상가라는 더 어너러블할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경제학을 넘어서서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 큰 의미가 있는 거 같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사상가에 대한 타이틀에 어울리게 경제학의 여러 사상 조류에 대해서 섭렵하고 통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행사는 경제연구소하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하고 공동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협의회에 현재 회장이신 임현진 교수님, 아시아 연구소를 창립하신 우리 임현진 교수님께서 잠시 인사말 있겠습니다.

**임현진 교수:**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행사한 이래로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강연을 참석해준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마침 저희 사회과학협의회에서 금년에는 세계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 서너 차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독일 사회학자가 와서 독일 사회학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이근 선생님께서 우리 장하준 선생을 모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잘됐다, 그러면 우리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가 공동주최 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장하준 선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하준 선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죠. 요새 토마 피케티(Tomas Piketty) 저작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마 피케티보다 연륜도 더 있고, 상도 많이 받았고, 경력도 더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하준 선생이 오셔서 자기가 쓴 책을 이만큼 주고 갔어요. 그 중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많습디만, 사다리 걷어차기, 또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여러 책들이 있지요

제가 장 선생하고 인연을 갖게 되면서, 제가 사회학과에서 사회발전론의 강연을 할 때, 세계체제론하고 종속이론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때 경제학부 학생들이 몇 분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데, 한상진 박사는 아주 사회학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울산대에 가계시고, 장 선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운찬 총장님도 잘 아시고, 이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장학금을 받아도 돈이 항상 부족해요. 돈이 항상, 그런데 제가 하도 장 선생이 소탈하고 그래서 집안이 별 볼일 없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공부하다가 돈이 좀 필요하면 내가 아는 분이 런던에 있는데 연락을 해줄 테니깐,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아마 그 양반이 도와줄 거다. 하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양반

이 서울에 오셨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사나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이분의 집안이 명문에다가 막강하더군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학 협의회를 소개를 해드리면, 15개의 사회과학 관련 학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원우현 선생님이 과거에 회장을 하시고, 정운찬 총장님도 회장을 하셨는데요, 사회과학협회의 회장을 하시면 총리로 나가요. 총리, 총리로 나가시고, 여기도 상당히 센 조직입니다. 그래서 15개의 학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장하준 선생을 연사로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박수한번 쳐주시죠.

**장하준 교수:** 네, 이근 교수님, 임현진 교수님, 초대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은사이신 정운찬 교수님, 임현진 교수님은과는 달랐지만, 학부 때 제가 많이 듣고 따르던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참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얼마 전에 한국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옛날 펠리컨 시리즈라고 해서 영국의 팡켄 출판에서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발간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인문서 시리즈가 있었죠. 그 시리즈에서 맨 처음 나온 책이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라는 사람이 쓴 (원래 1928년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1937년에 수정, 증보해서 펠리칸 시리즈 첫 권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인 여성을 위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입문’(The Intelligent Woman’s Guide to Socialism and Capitalism) 이런 책인데, 이 책을 필두로 해서 3천 몇 권이 나왔는데, 주제가 다양합니다. 개미에 관한 책도 있고, 우주에 관한 책도 있고, 동양철학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그런데, 이게 80년대 중반에 멈췄다가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데, 제 책이 영광스럽게도 첫 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책 자체의 목적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고등 교육정도를 받은 분들도 어렵지않고, 재미있게 경제학의 입문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제연구소에서 초대를 받다보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양해드립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할 때, 자연과학처럼 딱 한가지의 정설이 있고, 그 정설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

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학파도 많고 그 사이에 의외로 또 다른 점도 많고 의외로 또 겹치는 점도 많으며, 여러 학파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경제학이라는 것이 풍부해진다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부터 하려는데요, 경제학을 안 배워 본 분들한테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 경제 연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죠. 다른 학문도 그렇게 그렇게 정의가 되니까요. 화학은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거고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거고,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학을 정의를 하지 않아요.

요즘 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목에 ‘everything’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이 왜 재밌냐고 물어보면 경제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깐 재미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경제학을 보는 것이 과대망상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경제학이 경제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자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분야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느냐, 과대망상증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대망상증의 결과는 아닙니다. 경제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즘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가 내리는 경제학의 정의자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의 정의는 옛날에 LSE 교수를 했던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1932년에 내린 정의에 기초한 것인데, 이 정의에 따르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희소성을 지닌 수단과 목적성의 관계로서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 다시 말씀드리어서 소위 합리적 선택을 연구 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정의는 그렇게 할지라도, 주로 연구하는 주제는 흔히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죠. 실업이라던가, 화폐정책이라던가, 경제발전이라던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의 개리 베커(Gary Becker)라는 경제학자를 필두로 한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적용 할 수 있다면, 그 주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커가 70년대부터 해서 계속 쓴 게, 결혼의 경제학, 사랑의 경제학, 마약 중독의 경제학, 범죄의 경

제학,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이 말이 아주 안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자기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얻는 예상된 이익과 예상된 비용을 재가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특히 괴짜경제학(프리카노믹스)을 필두로 해서, 흔히 우리가 경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경제학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프리카노믹스’ 같은 책들을 보면 경제하고 관계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껏 관련 있는 것은 시카고에서 마약 사고 파는 얘기, 부동산 중계업자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뭐 일본 스모선수들이 서로 어떻게 협잡을 해가지고 서로를 도와주나, 퀴즈쇼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경제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암시를 했지만, 상당히 특이한 학문의 정의입니다. 다른 학문들은 학문의 경계가 그 방법론 보다는 주제 내지는 연구대상에 의해 규정되고 있거든요. 생물학에 가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기체를 연구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DNA 분석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부도 하고, 또 쥐 가지고 실험을 하고, 동물 행태가지고 수학모델도 하고,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고릴라들이 뭐하나 적는 사람들도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생물학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생명체를 연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제학도 다시 그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 아니라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하는 경제는 요즘 흔히 이야기 하는 시장뿐이 아니라 생산, 분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연구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경제학이 규정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하는 데 오직 한 가지 옳은 길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학의 학파가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만 최소한으로 해서 9개거든요. 고전학파(아담 스미스 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도 David Ricardo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지요), 신고전학파, 뭐 이걸 다 아시

는 거고, 마르크스 학파, 케인즈 학파, 슈페터(Schumpeter) 학파(이근 교수님 뭐 제가 상 탔다고 칭찬해주셨는데, 이근 교수님은 최근에 슈페터상이라고 제가 탄 상에 비해 훨씬 더 큰상을 타셨어요), 그리고 하이에크(Hayek) 미제스(Mises)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 제도 학파, 행동주의학파, 개발주의 전통 모두 9개를 이야기합니다. 개발주의는 제가 학파라고까지는 이름을 안 붙였는데, 그것이 다른 학파에 비해서 정교한 이론이 없고, 학자들보다는 실무자가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가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책에서 쓴 이야기이지만, 소위 유치산업보호 이론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라는 사람이에요. 10달러짜리에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은 덜 정교하고, 그 내부에서 합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파라고까지는 안하고 개발주의 전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은 학파들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신(리카도학파), 남미구조주의,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페미니즘 경제학 해가지고.

이렇게 학파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학파가 많은걸 잘 모르죠. 대부분 뭐 신고전학파, 마르크스, 케인즈, 뭐 이정도만 아는 거지, 다른 이런 학파들은 잘 들어본 적도 없지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제가 이야기한 9개 학파 중에서 자유시장주의만 3가지라는 것입니다. 고전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흔히 신고전학파하고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고전파의 이론에는 배워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시장실패 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고전학파가 자유시장주의가 아니에요, 80년대 이후에 많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주의적인 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고전파라고 해도 예를 들어 스티글리츠(Stiglitz)나, 크루그먼(Krugman)같은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 라고 할 수가 없죠. 신고전학파 중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유시장주의 분파가 있는 것이고 신고전파 전체가 자유시장주의는 아닌 것이죠. 여하간, 자유시장주의를 지지하는 세 학파가 자유 시장을 그 정당화하는 이유들 자체가 다릅니다. 분석방법 자체도 다르고. 예를 들어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개인의 선택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고전학파에서는 개인이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적인 카테고리 아니죠, 고전파 이론은 계급이론입니다. 자본과 지주 노동자, 그 세 계급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이 분석의 중심이고, 개인이라는 것



은 그 이론의 핵심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는 둘 다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신고전학파에서는 개인의 선호라는 건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에 기초해서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가인 하이에크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성(reason)과 본능(instinct) 사이에 전통(tradition)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견해는, 인간이 많은 부분은 그냥 전통이다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나머지 부분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개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개인은 행동주의라던가 제도 학파에서 취하는 개인의 개념하고 오히려 많이 유사합니다. 신고전학파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 가냐에 대해서도 – 물론 책 읽으시는 분들 쉽게 하려고 굉장히 단순화 한 것이지만 – 신고전파 이론으로 자유 시장 주의를 옹호할 때는 사람들이 각자 다 알아서 하니깐, 그냥 놔둬라, 다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렇게 해서 자유 시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학파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누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지만, 남은 더 모르니깐, 간섭을 말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정치적으로 두 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지만, 1940년대에 그(하이에크)가 쓴 일련에 글들을 보면 신고전파 경쟁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하이에크) 주장은 신고전파 완전 경쟁이라는 이상을 이야기 하는데, 신고전파적인 완전경쟁에 실제 경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시장지배력이 없으니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마비상태이지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혁신하고 뒤집어 엮고 그런 것이 경쟁인데, 신고전학파에서 이상으로 그리는 완전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막 거의 욕을 하다시피 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하이에크는 슈페터(Schumpeter)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이에크가 이 문제에 대해 쓴 글들을 모아 논 것들이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라는 책인데, 저는 사실 하이에크의 결론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 책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학파들 간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를 추구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으로 소위 ‘리버럴(liberal)’이라고 하는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데, 원래 자유주의가 처음 나온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개인 재산권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상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런 식의 고전적 자유주의이지요.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1970년대 칠레의 그 피노체트(Pinochet) 정권이 쿠데타를 했을 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었어요. 우리나라적 시각으로 보면 자유주의라면 민주주의도 지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이에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은 재산권의 자유이지 민주주의는 이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에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가치판단에 동의를 못하면, 그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파를 이야기 할 때도,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정치 경제학이었죠(political economy). 그래서 아담스미스(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하다못해 신고전파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제본스(William Jevons)까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은 그 신고전학과 들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과학화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고, 정치가 들어가면 과학화가 안 되니깐, 그걸 없애야 한다고 해서 학문의 이름을 경제학으로 바꾸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고전파의 ‘경제학 탈정치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파레토 원칙입니다. 파레토 원칙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그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다수에 횡포에서 소수를 보호하는 원칙이지요. 제가 파레토 원칙을 설명할 때, 책에서 쓴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설명을 자주 하나면, 내일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방문해가지고, ‘장 교수님 저희가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이제 시행을 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장 교수님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죠, 뭐니까? ‘이 기계를 움직이려면 살아 있는 사람 손가락 하나 잘라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주시라고.’ 그러면, 당장 제가 가지고 와서 식칼로 잘라서 주겠죠, 지구를 구한다는 데…… 근데 팔 하나 잘라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할 거 같아요. 네 목숨을 달라고 하면, 글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네 가족을 다 죽여야 한다? 오천



만 한국인을 다 죽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다치면 이게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이태리 프랑스 혼혈이고 스위스에서 교수를 했습니다)가 주장을 한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파레토 원칙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이죠. 기존 체제를 조금이라도 어그러트해서 그 체제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들이 노(no)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르기 힘들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고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에 가면 흔히 있는 일인데, 한사람은 아니지만, 뭐 20여 가족이 국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의 10%만 덜면 빈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다들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 파레토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파레토 원칙을 희생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를 크게 행복하게 하기위해 소수를 조금 희생하는 것도 맞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파레토 원칙도 정치적 견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뭐냐에 따라, 똑같이 그 분석을 해놓은 것도, 동의를 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90년대 말에 미국에서 시민단체에서 미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같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굉장히 저임금을 주고 거기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해서 반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그만이 그 논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가 개입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뜻은 좋은데 이건 잘 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야기 한 것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마치 저임과 고임 사이에 무슨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임 아니면 실업이다. 그런 상황에서 직업이 없으면 월급이 0원이니깐, 조금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꼭 그쳐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가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임금 하방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 나라에 아동노동이 많은데 아동노동을 없애버리면 또 임금 하방압력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산업정책을 해가지고, 고임 일자리를 만들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저임과 고임사이에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크루그만) 직접 만나본적은 한번 밖에 없지만, 그 사람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했던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그 이야기가 비현실적 이야기라 안했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 한 게 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의무교육 도입해가지고 13세 이하 아동노동 없애고, 토지개혁 하고, 산업정책 해가지고 고임 일자리 만들어 내고, 그 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부자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고임금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루그만 같은 사람이 이런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한다면 그것도 명시적은 아니지만 암시적인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일단 주어진 소득분배, 권력분배를 받아드리고, 거기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찾아 보자, 라는 게 대부분의 신고전파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분들이 따르는 방식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이론들 사이에 도덕적 정치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론 자체가 마음에 들더라도 그 밑에 깔려있는 가치에 동의할 못 하면 그 이론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 더해, 이론들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 개념의 차이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전파는 계급이론, 신고전파는 개인주의이론이지요. 물론 오스트리아학파도 개인주의 이론이고, 신고전파나 오스트리아학파같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행동주의 같은 것도 개인분석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전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즈 학파는 이런 것들은 계급이론입니다. 이런 학파들은 개인의 소비성향이나 소비의 취향마저도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고전파하고 오스트리아학파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개인이냐 만들어진 개인이냐 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각 학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전파, 마르크스주의, 신고전 학파 등은 확실성에 기초한 이론들입니다. 신고전파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해서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고전파나 마르크스학파의 경우는 철의 법칙(iron law)라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자기 이론에 대한 확신이 엄청난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스트리아학파나 케인즈 학파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강조하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지도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해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국방부 장관을 했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학을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있다. /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있다. /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나 제도주의 학파나 케인즈 학파에서 이야기 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은 모르는 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고전학파에서 이야기 하는 위험(risk)이라는 건 모르기는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전파나 마르크스에서 말하는 철의 법칙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심사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전파 이론은 교환에 중점을 둔 이론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교환을하느냐. 그런데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 슈페터(Schumpeter)학파, 개발주의, 이런 것들은 생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스미스가 자신의 책에서 제일 처음 쓴 것이 시장이 아닙니다. 공장에 대해서 썼어요. 그 유명한 핀 만드는 공장.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나 그 고전학파적인 생각에서는 생산하고 그걸 위해서 자본 축적하고 이러는 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고전학파로 오면서 경제이론의 중심이 교환으로 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로널드 코즈(Ronald Coase)라고 유명한 신제도학파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신제도 학파이니까, 신고전파적인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제도학자인데, 그 사람마저도 1992년에 노벨상 탔을 때, 연설을 하면서, 신고전학파에서 너무 생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 물론 뭐 생산 함수 이런 건 있지만, 아주 기계적인 관계로 보는 거고, 계속 교환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수렵채집 사회에서 개인들이 그 콩하고 과일하고 이런 거 교환하는 경제 관한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까지 험담을 했어요. 물론, 꼭 어떤 학파가 옳고 다른 학파는 그른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점을 다르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신고전파 이론은 균형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슈페터(Schumpeter)학파나 오스트리아학파 이런 사람들은 균형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독점 같은 이야기를 보면, 신고전학파에서는 독점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니깐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건데, 예를 들어 슈페터(Schumpeter)학파나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독점이 어제의 혁신이었고, / 오늘의 독점이 내일 없어진다.’ 그런데 길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에 카메라 업을 대표했던 코닥 같은 회사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복사기 한창 많이 쓸 때, 자기 회사 이름이 거의 ‘복사기’를 뜻하던 제록스도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옛날에 1955년에 미국 차 시장이 한 7~8백만 대 되는데 거기에 350만 대를 공급을하던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은 그 부동의 1위의 지위를 잃었고. 이렇게 보면, 슈페터학파나 오스트리아학파 이야기가 더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환이나 생산이나, 균형이나 동학이나 이렇게 보는 주제에 따라 더 유용한 이론이 있고, 덜 유용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파간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학파들 간의 경계가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칼 멩거(Carl Menger)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제본스(Jevons)하고 발라(Walras, 영어로는 왈라스) 그 둘과 함께 멩거를 신고전학파의 아버지 중에 한사람이라고 꼽기도 해요. 그리고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라고 192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미국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흔히 신고전학파로 취급되지만, 사실 제도주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케인즈 주의나 행동주의 등과 겹치는 부분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학파로만 분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학파가 필요하다, 이걸 다 알아야 복잡한 경제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드는 예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자유시장주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나라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토지의 90%가 국유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85%가 정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주택공사가 공급을 하고, GDP의 22%가 공기업에서 생산이 됩니다. 공기업이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흔히 하는 전기, 가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타보셨겠지만, 싱가포르 에어라인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조선, 엔지니어링 등 안 하는 게 없어요.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세계평균을 보면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GDP가 8~10% 되는데, 싱가포르는 그 비율이 22%란 말이에요. 산유국 외에는 공기업 부문의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 싱가포르를 놓고 설명을 할 때,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통상적인 자유시장주의 이론은 안 되는 거고, 정부소유가 많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어요? 싱가포르가 단적인 예이지만, 실재가 소설보다 더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현실경제에는 그냥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해서 어떤 때 어떤 이론을 사용할 지를 이해하려면, 현실경제, 경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숨어 어떤 정치적 윤리적 가정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하니까, 철학 정치학, 사회학도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들 하지 않지만, 저는 책에서 여러 가지 경제학파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사상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론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고전파가 아닌 다른 학파를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쓰고 있는 이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전파나 마르크스학파가 쓰던 계급, 지금은 한물 간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케팅 회사에 가보세요. 계급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층이 무슨 물건을 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냐, 이런 분석해서 하는 마케팅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쇼크 받았던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그런 테크닉 같은 거 있지도 않았을 때인데, 전체 사회를 커버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두 가지를 시킵니다. 하나는 너희가 쇼핑을 해오면 이 기계를 가지고 너희가 사온 물건들의 바코드를 한번 더 다 찍어라. 또 하나는 이 박스를 너희가 보는 티비 위에 붙여 놓아라.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산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뭘 보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급이론의 실천이 아니고 뭐겠어요. 계급마다 소비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경제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론들도 그걸 보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식회사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주식회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같은 것이 그 예이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요즘식 용어로 하면 도덕적 해이를 걱정을 한 거예요. 매니저가 그 기업 전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실패해도 자기가 그 부담을 다



지지 않아도 되니깐 대강할거란 거죠. 그래서 아담스미스 국부론을 보면, 명시적으로 주식회사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그래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식민지 경영이나 큰 은행 등은 할 수 없으니까 왕이 특별히 칙령을 내려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인데, 이게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 동원을 많이 해야 하게 되면서, 주식회사를 일반화 시켜준 것이지요. 이때 제일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이걸 막 칭찬을 합니다. 물론 꿩꿩이속이 있지요. 이 사람의 견해는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하고, 자본이 집적이 되고, 생산이 대규모가 되어야 사회주의가 온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사회주의가 더 빨리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대부분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주식회사를 반대했던 말이에요. 주식회사에 대한 논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옛날 논쟁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논쟁들입니다. 주식회사 제도가 요즘 바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가 전문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만, 그것이 대규모 자본 동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도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지금 딜레마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한 옛날 논쟁과 맥이 통하는 것이지요.

제가 경제학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들을 '사상사'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사상사 쪽의 관점에서 접근 하면, 이론이 현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사적으로 보게 되면, 학자들끼리 얘기하게 돼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에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어느 이론이 실제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요. 제가 이제 책에 많이 썼지만, 소위 개발주의, 내지는 발전주의라는 전통은 이론적으로 제일 약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데, 사실 실제 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으로 하면, 어떤 학파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이 야심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문서가 '관세에 관한 보고서' 뭐 이런식으로 제목이 아주 겸손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해밀턴이 이미 18세기 말에 미국이 경제발전하려면, 관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유치산업 보호하고, 정부가 운하라든가 이런 사회간접자본 투자하고, 은행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국제시장 발달시켜야 하고, 특허법 도입해야 하고, 그런 엄청난 경제계획을 했어요. 해밀턴이 살아있을 때는 정치적 반대가 심해서 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1820년대부터 해밀턴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미국이 경제발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도 아니었고, 뭐 말



하자면 정교한 이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론이 미국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사만 보면 해밀턴은 각주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바꿔 놓은 거 보면 케인즈 보다 더 큰 공헌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생각해봅시다. 요즘 추종자도 별로 없고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막강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강화 시켜가지고, 자본주의를 자꾸 압력을 넣어서 수정을 시켜서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 제도로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던 말이에요. 사상사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역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학파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사상사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이야기에 바쳤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제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이 책으로 말하면 4장입니다)를 쓰기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 사상사 강의 지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가지고 옛날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런데 50년 뒤에 누가 개입해가지고, 처음에 진출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긴거다 -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무척지같이 재미있는 점도 있지만, 이게 현실하고 너무나도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왜 고리 타분하게 이런걸 배워?’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론 논쟁을 현실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사상사’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해가면서 여러 학파를 소개한 것입니다.

결론은 경제학을 하는데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모든 학파가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이론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백화제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백화제방이라는 게 모택동이 그 처음에 꼭 쥐고 있다가 조금 풀어주면서, 백화제방, 백가지 꽃을 피게 하고, 백가쟁명, 백가지 학설을 서로 논쟁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랑 반대한 놈들을 다 잡아서 집어넣었지만, 이러한 백화제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같이 발전할 때만이 서로 자극도 주고, 서로 커버 못하는 부분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제 주장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백화제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필 테면 퍼라 이런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보존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뭘니까? 유전자 풀(gene pool)이 너무 단순화 되면 쇼크에 약하단 말이에요. 요번에 경제학에서도 봤죠. 2008년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 주류경제학자들, 특히 시카고학파에서 케인즈 학파 이야기는 틀렸다고 했는데, 결국 금융위기가 나자 정책입안자들이 가져다가 쓴 것은 케인즈주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케인즈 이론을 다 없애 버렸으면 그런 걸 할 수 없었겠죠.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존재가 없던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생태학적인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중교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미 이중교배가 상당 부분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근 교수님이 하시는 슈페터(Schumpeter)주의 하는 분들하고, 제가 많이 하는 개발주의 하는 분들하고 서로 보완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꼭 보완이라기 보다는 학파들 간에 싸우면서 서로 발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 제도주의, 행동주의 이 3학파가 기업이론에 대해서 계속 서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한 코즈(Coase)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마르크스 이야기를 많이 안하지만, 그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 1937년 기업이론에 관한 논문을 보면, 마르크스의 기업 이론하고 새도우 복싱(Shadow boxing)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80년대에 오면 또 마르크스를 이어받은 스티브 마글린(Steve Marglin)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하고, 신제도학파의 거두인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하고 소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노동과정론에 대한 논란을 많이 하죠, 마글린(Marglin)의 주장은 자본가들이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 효율성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자기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해주는가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작업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자본가의 통제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마글린과 또 브레이버먼(Braverman) 이런 사람들은 기술발전 경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윌리엄슨은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

해 논쟁이 일어난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논쟁과정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한가지 예만 더 들자면, 케인즈주의 하고 행동주의는 둘 다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죠. 물론 행동주의가 인지과정까지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심리 문제에서는 더 강점이 있지만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다니엘 카네만 (Daniel Kahneman)이라는 분은 원래 심리학자이지만 행동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라는 경제학자 하고 굉장히 연구를 같이 많이 했지요)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서 요즘 행동금융 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종교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그 학파들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파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마르크스학파가 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지만, 다 계급분석이기 때문에 접합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접점에 서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브리지, 옛날의 제가 거기에 공부하러 가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여사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접합하려고 많이 노력 했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오스트리아학파하고 마르크스 학파는 서로 견원지간이죠. 맨 처음 오스트리아학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가치 논쟁, 방법론 논쟁, 1920년대 와서는 계획경제 논쟁 해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철천지원수인데, 기술 혁신이나 경쟁에 문제에 있어서는 신고전파 보다는 오히려 이 두 학파가 서로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학파하고 케인즈 학파 또 굉장히 많이 싸웠죠, 케인즈하고 하이에크(Hayek)하고 굉장히 앙숙 관계였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학파는 세상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는 데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행동주의나 제도주의도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마르크스주의와 신고전파의 관계를 보면, 그 옛날 저 80년대 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마르크스주의 이론 중에 하나가 자본 도출론인데, 나중에 읽어 보니깐, 결국 신고전파의 공공재나 시장실패 이론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물론 자본 도출론자들은, 흔히 공공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공공재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니까 신고전파 시장실패론과는 정치적 함의가 다르지만, 이론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 15장에서 아동노동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서 한 분석도 결국 공공재 이론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들이 다 아동노동을 쓰면, 자기는 자기 혼자 안 쓸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쟁에서 도태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걸 다 같이 못하게 해야 노동력의 질이 올라가서 자본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 자본가들은 아동노동 규제를 앞장서서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고전파에서 많이 쓰는 집단행동이론(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혹은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논리이지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학파는 제도주의, 행동주의 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싫어하지만, 이 세 학파 모두가 인간을 켜가 진(layered) 존재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고전파는 인간이라는 건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보고, 마르크스나 고전학파는 계급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오스트리학파, 제도 학파, 행동학파는 모두, 인간이라는 것이 (제도학파의 베블렌이 만들어낸 용어들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맨 밑에 본능(instinct)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습관(habit) 혹은 관습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믿음(belief), 그리고 그 위에 이성(reason)이라는 존재하는 '켜가 진' 존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균질한 존재가 아니고, 밖에서 규정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 의해서 많이 규정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면에서는 오스트리학파는 신고전파보다는 제도주의나 행동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제학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은 도덕적, 혹은 정치적 가치의 차이 내지는 관심사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게 더 맞다 틀리다 말하기 힘든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 좀 세게 쓰면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정치적 논쟁(political argument)이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장려하고, 또 그 다양한 접근간의 이종교배를 장려해서 더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야 우리가 복잡한 현실 경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자유시장경제이론이나 신고전파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좌파 내지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한 9개 주요 학파는 정말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점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나면, 나는 마르크스를 읽은 만큼 하이에크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나 하이에크나 결국 둘 다 제가 동의를 안 해요, 하지만 둘 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소위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이론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원주의라는 것을 정치적인 원칙으로서 지지하는 것이지, 지적인 원칙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옛날에 볼테르라는 프랑스 유명한 사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 나는 당신하고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주장을 하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다. 이 입장은 정치적 다원주의죠.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지적인 다원주의입니다. 누구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마다 중요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론들을 적용해야, 그리고 모든 이론들이 다 그 밑에 정치적 도덕적 판단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론이 공존하고 상호교류를 해야 세상이 제대로 설명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다원주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하는 걸 보면 개발주의, 행동주의, 제도주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신고전학파를 이론 많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케인즈 학파 이론 가져다 쓰고, 잡식성이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걸 싫어하죠. 학자 분들이 순수하니깐, 재는 뭐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근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비판 받아도 좋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저의 지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론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이종교배를 하자는 이야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 교수:** 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는 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장 교수는 여기서 다양한 경제학 교류를 다 흡수하자고 했는

데, 사실은 본인으로서 사실은 개발주의를 핵심으로 해서 그 분야를 계속 파기 때문에, 이 분야에 어떤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세상 교류나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자기 분야를 계속 파는 것이 학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장 교수처럼 되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자기 분야를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두 세 개씩 받고 답변을 하는, 라운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1:**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멸종위기에 처한 학과가 있습니까?

**질문 2:** 경제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교수님께서 지적인 다원주의를 이야기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적인 다원주의가 결국엔 여러 학문 방향이 나오고 다양한 결국에는 학문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실용적으로 이용되는가가 최종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마다 만약에 어떤 이게 효율적인 이론이라고 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이 방향성을 정의하기 어렵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에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뭔가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니다. 예를들 어가지고 어떠한 이론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하준 교수:** 예, 이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하는 거 열심히 해야죠. 아담 스미스가 맨 처음 이야기 한 게 공장이고, 그 공장에 중요한 점이 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졌기 때문에, 분업을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 수박 겉핥기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생물학과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학과에서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아가지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거의 가상의 세계 속에서 게임이론 같은 거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서베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계 패키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문헌도 뒤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걸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



은 경제학자들이 그 다양성에 대한 관용, 즉 톨러런스(tolerance)가 낮아졌다는 거죠. 너 왜 수학 안하고 역사책 같은 거 보느냐, 통계자료 돌려야지 왜 자꾸 공장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학파가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경제학과 내에서는 신고전학과 외에는 대부분 멸종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학파들이 다 멸종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학과에서 한 가지만 하다보니깐, 다른 데에 있는 잠재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신고전과 아닌 경제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비즈니스스쿨에서 말하자면 행동주의나 제도학파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학과 이런 데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사실 여러 학파가 아직 다 있는데, 문제는 신고전파가 아닌 경제학은 경제학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비즈니스스쿨, 지리학, 공공정책학과 이런데서 한다는 게 문제죠. 반면에 많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소위 경제학 제국주의를 추구하여 다른 과에서 하는 주제를 연구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견해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경제학의 정의를 ‘경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국한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경제학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이 어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이죠. 제국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죠, 그 침략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저거 다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지 않냐 라고 이런 질문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이종교배를 해가지고 다른걸 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산업정책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실 주로 쓰는 게 신고전파 시장실패 이론이에요, 그러나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슈페터나, 오스트리아학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섞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정도 그런 식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 정합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즈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한 틀 내에서 하되,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주제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써서 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꼭 맞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니깐, 많은 부분은 암묵적으로 놔두어야 하겠

지만, 가능하면 나는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 나는 이런 문제를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휴대전화 시장처럼 엄청나게 막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라면시장처럼 뭐 많이 변화가 있는 거 같지만 결국은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 두 시장을 분석하는데 다른 이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이야기 하면서, 내가 이 이론을 쓰는 것은 이 시장에 기술 혁신이 많기 때문에, 신고전학과적인 산업조직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 한계가 있으니깐, 숨피터 이론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여긴 남학생들만 질문 하나 보죠? 저 맨 뒤에 서계신 분.

**질문 3:**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부 오종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동의의를 해서 반대측면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전해 드리면, 과학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최신 물리학 책을 보지 옛날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지 않는 데요 특별히 경제학에서 과거의 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는 가장 널리 쓰인 틀이 계량적인 분석인거 같고 심지어 그게 계량가능성과 비가능성이 과학이랑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생각하는 거 같은데, 심지어 그래서 그렇게 계량가능하지 않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고, 그런 방법론을 즐겨 쓰지 않는 학파에 대해서 좀 다수가 아는 심지어 ‘경제학의 탈을 쓴 소설가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못한 학파들이 덩달아서 그런 소위 과학화라든가 계량화라는 방법론에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론 자체가 아예 정치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바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설의 차이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판단의 차이나 그런 것으로 보통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경제학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학이나 철학의 하위 분야, 즉 경제를 보는 정치학이라든가 혹은 정치학이나 철학의 하위 분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경제학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6:**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고, 또 차선 이론들 같이 이론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오늘의 문제는 그 이론의 ‘백화제방’ 보다는 그 이론 간의 대화, 경제학자들의 공동체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장하준 교수:** 네, 감사합니다.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는 이야기죠, 물리학과 학생들이 뉴턴의 프린키피아(Principia Mathematica), 하다못해 아이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논문 읽는 거 봤냐.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거 보다 더 나가서 5년, 최대로 10년 전 이전에 나온 논문들은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과학 내지는 지식이라는 게 단선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니까, 확실히 뭐가 맞고 틀리고 할 기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같은 틀 속에서 연구를 한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제학은 성질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실험이 거의 불가능 하단 말이에요. 요즘 실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인도에서 마을 두 개 정해서 한 마을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주고 다른 마을에는 급식 안주고 해서 급식의 효과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이런 실험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이상의 실험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실험을 한 게 무엇인가요. 소련의 계획경제이고 80년대 90년대에서 IMF에서 많이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고, 그 실험을 해서 잘못되면 몇 백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이론을 증명하자고 매일 같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단선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판단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이런 학문들 같이, 아, 뭐 옛날에 한 것 중에 쓸만한 것은 다 이미 지금 이론에 흡수되어 있으니 새삼스럽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 힘든 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해요.

계량화, 이게 흔히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게 이 마르크스주의, 케인즈 주의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수학 많이 쓰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근 선생님이 하시는 진화경제학에서도 고등수학 많이 씩

니다. 하다못해, 10여 년 전쯤에 (불란서) 대통령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나왔던 알랭 리피에츠(Alain Lipietz)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자 있는데, 그 사람이 1979년에 소위 마르크스의 가치 전형 문제(Transformation Problem)를 수학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푼 논문이 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나온 적도 있어요. 케인즈 주의자들인 던컨 폴리(Duncan Foley), 랜스 테일러(Lance Taylor) 이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수학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수학을 쓰냐 안쓰냐 가지고, 이게 과학이냐 비과학이다 결정 할 수도 없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계량화가 과학성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학에서 쓰는 숫자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 인용한 말인데, 괴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그러니깐, 사실이라는 통계 이런 걸 만들 때 다 전제가 있는 겁니다. GDP에 가사 노동 안 들어가잖아요, 왜 안 넣어요? 정치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어, 그거 시장에서 거래 안 되니깐, 잡기 힘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임대료를 안내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 집에서 받는 주거 서비스를 GDP에 반영을 합니다. 귀속 소득(Imputed Income)이죠. 그런 것까지 GDP에 집어 넣는데, 가사 서비스 왜 못해요. 그런 식으로 경제학에서 쓰는 숫자 자체에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아인슈타인이 한 멋진 말이 있지요. ‘Not everything matters can be counted, and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matters.’ 그러니깐,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깐 계량화가 가능하냐 아니냐는 그게 과학성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는데 계량화를 안 하고 네가 본 다는 게 말이 되느냐 - 특정한 주제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던가, 계량화를 잘 못하면 도리어 왜곡된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계량화를 안 한다고 너 이거 과학 아니야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두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경제학이 옛날에는 도덕철학의 분과였어요. 독립된 경제학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긴 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이었는데 1903년, 그 전까지 캠브리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서 경제학이라는 게 도덕철학의 일부로 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꼭 나쁠 건 없지만, 저는 경제학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제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

학자들이 2백 년 3백 년 동안, 특별한 개념들과 이론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다못해 이윤, 임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개념과 이론을 다 만들어 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덕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도덕이나 정치학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분은, 이론 들 간의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되니까, 경제학 이론이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것으로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2008년에서 같이 특정 경제이론이 실패를 하면 경제학 전체가 불신을 받고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론의 다양성이 표출되기 힘든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학 자체에도 좋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경제학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깐.

**질문 7:**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만나 뵈었던 교수님을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구요, 제가 질문 할 것은 오늘 강연을 들었던 제 질문이 아니라, 교수님을 정말 만나 뵈고 싶었던 하지만, 오늘 참여하지 못했던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장준우라는 한 학우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공적영역,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서 그런 복지시스템이 도입되기 힘들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근 교수:** 강의 안 들어서 딱 주제에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질문 8:** 저는 여학생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하준 교수:** 너무 젊으셔서 학생인줄 알았어요.

**질문 8:** 저는 ‘백화제방, 이중교배’라는 강의 제목이 매력적이어서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은 잘 모릅니다. 수학은 조금 아는 데요. 그래서 수학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좀 행복 했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을 새로 정의하셨는데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저한테는 굉장히 항진명제(tautology)처럼 들리는데, 그런 게 새로운 주장이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수학은 수를 통해서 세상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런데 그게 새로운 주장 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교육을 연구하다 보니깐, 수학교육도 지식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 지식은 어떻게 획득하는 거냐, 예를 들면 지식은 습득되는 거냐, 구성되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 이론이 있고, 그 여러 이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킹 이론(networking theory)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이론 간의 상호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장 교수님께서서는 경제학은 이중교배를 통해서 백화제방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건 경제학에만 적용되는 주장이신지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하준 교수님처럼 위대한 학자, 경제학자가 되려면 위대한 학자가 되려는 갖춰야 될 덕목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9:** 네 경영학과 10학번 강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전주의 학파가 외에는 다른 학파는 전부다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 하구요, 다른 학파, 이중교배를 위해서는 분명 다른 학파들이 생존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0:**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전의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연결이 됩니다. 신고전학파를 제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제학이지만, 거기에는 정치적인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지금 미국 같은 그러니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유리한 학문이 신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파들이 전복을 시키고 있지를 못하지 있지 않나, 심지어는 다른 의견을 제기도 못하고



못하고, 이종교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수 기득권이 자원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깨고 그것을 이야기 하고 이종교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동력이 필요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질문 11:** 의과대학에서 보건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학이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분야를 자꾸 침범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가 보건,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는 정보의 문제가 굉장히 유용한 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룰 때, 경제학이 좀 쓰일 수 있는 다른 어떤 유용한 측면, 내지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듣고 싶습니다.

**장하준 교수:** 예 여러 가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모델 되겠느냐, 그것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해야 하는 질문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건 북유럽도 옛날에는 북유럽 모델 안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그 나라들은 옛날부터 사이 좋게 살고 세금 많이 내고 한 거 같지만, 1920년대에 스웨덴이 세계에서 노사관계가 제일 나쁜 나라였습니다. 뭐로 측정을 하나면, 파업으로 잃어버린 일수 - 일인당이지요, 나라마다 크기가 다르니까요 - 그걸로 잴 때 이야기입니다. 또 스웨덴에 1932년까지 소득세도 없었습니다. 그 세금 싫어하는 미국도 1913년도에 소득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이미 1842년에 소득세를 도입을 했는데, 스웨덴은 1932년까지 소득세가 없었어요. 이렇게 북유럽 모델이라는 것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쪽을 베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것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는 거죠. 물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디자인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이 과도기 인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소득 분배에 불평등이 높아지는 걸 막았냐면, 규제로 막았던 말이에요. 토지개혁하고 농지 못 팔게 해가지고 소농 유지해주고, 소매업 같은 것 엄청나게 규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멍가게 해가지고 겨우 근근이 먹고살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97년 외환위기 체제 이후에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들던지,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미국같이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불평등한 나라가 되는 것은 싫

고, 뒤로 돌아가는 것은 갈 수도 없고,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가서 북구형 복지국가 모델을 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있는 거죠. 미국같이 불평등한 거 싫다 - 이런 판단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론도 깔려있습니다. (북구)식으로 복지를 해서 불평등을 낮추고, 거기에 노동자 재교육 같은걸 잘 조합하면, 구조조정이나 경제성장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을 하자면, 경제학을 제가 새로 규정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학문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과 그냥 똑같이 해 본 건데, 그게 새로운 것으로 들리는 것은 경제학 자체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명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겁니다. 여러 이론 간의 상호 연결, 뭐 이런 게 제가 뭐 지식사회학이나 과학철학 같은걸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긴 한데, 경제학에서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과학 철학 하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신고전학파가 지나치게 득세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이거 어떻게 바뀌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고전학파의 득세에 물론 정치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신고전학파 내부 자체에서 자유주의시장 주의가 급격하게 득세하게 된 것도 정치적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진짜로 꼼꼼히 세어 본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신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제학을 과학화 해야 한다,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는 맞긴 틀리건 간에,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기준으로 자꾸 균일하게 재단을 해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는 소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고전과 경제학을 안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고, 그러다보니 경제학이 편협해 진건데, 제가 보기에 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도 신고전학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신고전학파 이론으로 온갖 걸 다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논쟁 할 때, 계획 경제가 가능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제일 공헌을 한 사람이 폴란드 출신 경제학자 오스카 랑게(Oscar Lange)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일반균형이론으로 자기 주장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에

대항해서 싸운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를 일반균형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없다, 세상에 불확실성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를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냐, 사실 그렇게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마르크스학파와 오스트리학과가 싸운 거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고전파하고 오스트리학과가 싸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편협하게 계량화 꼭 해야 하고, 꼭 자유 시장 지지해야 하고, 이런 게 신고전학과가 아닌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학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파들이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글썬요 저는 꼭 뭐 그렇게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마음을 좀 열어 주시면, 뭐 충분히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편협한 신고전파 경제학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서 경제학 제국주의 이야기 하신 분에 답하자면, 그렇죠. 그 신고전학과 이론적 도구 중에 유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히 의료부분에서 정보 경제학 이라는 게 그럴 거고, 전기사업이라든가 자연독점 분석하는 데에 시장실패에 이론들이 없으면 사실은 분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유용한 것들은 다 갖다 써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구들을 다른 분들이 가져다 쓰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 해야 할 까요, 누가 자기한테서 그 망치니 톱이니 도구를 사갔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지고 너 이걸로 딱 짓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장을 만들어야 되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왜 자기네가 와가지고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나면, 효율성 말고 다른 중요한 가치관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사실 효율성만을 따지면 없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관광 가서 멋있다고 하고 다니셨겠지만, 그 관광이 가능하게 된 게 스위스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와 우유를 먹으면서 자기네 농민을 보호해주는 거고 그 농민들이 행여나 불편할 세라 높은 데에 있는 마을들은 하루에 4번씩 우체국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저가의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이 밭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돕는 것이거든요. 우체국이 민영화 안 됐으니깐, 정부가 돈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효율성만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 다 없애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편요금도 먼 곳이나

배달하기 힘든 곳은 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잊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다른 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죠 -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사회가 운영이 안 된다, 당신들이 아는 것은 경제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이고 이윤이고, 생산성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도 많다. 이 점을 이해할 때, 경제학이 제국주의적인 학문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같이 일하면서 도와가지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좋은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근 교수:** 여기 이 자리에 장하준 교수님의 은사님이시고 서울대 총장 역임하신 정운찬 교수님 와계신데, 정운찬 교수님은 영원한 케인즈 주의자이신데, 오늘 여기에서 간단한 총평 한마디 해주시지요.

**정운찬 교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하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의 다 동의합니다. 제가 장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 유학하기 시작하는 시절 1980년대에 LSE에 있었는데, 기숙사 방에서 노닥거리고 놀다가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되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도 오늘 언급 되었던 모든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일찍 좀 공부를 다 했으면, 장하준 교수처럼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근 교수:** 네 뭐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스펀터가 창조를 정의할 때 'new combin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경제 분야를 조합해가지고 자기 주제에 맞는 새로운 주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소: Faculty of Economics, Sidgwick Avenue, Cambridge, CB3 9DD, United Kingdom

전화: +44-1223-335213

팩스: +44-1223-335475

E-mail: [hjc1001@cam.ac.uk](mailto:hjc1001@cam.ac.uk)